

# 지루한 영어, 웃으며 익힌다

## 짤막한 유머와 조크, 소설,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

‘웃으며 익히는’ 영어교재들에 독자들의 손길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요즘 지하철 안에서 영어책을 보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영어책을 보면서 웃을 정도면 아무래도 영어실력이 꽤 되겠지?’ 하며 기죽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책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어를 유머로 해설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쏟아져 나온 영어책들은 회화·문법·단어·숙어 해설에 ‘요절복통’할 유머를 섞거나 풍부한 삽화와 짧거나 긴 이야기를 삽입해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영어교재와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책은 본격적인 영어 공부에 돌입하기 전에 영어를 좀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한다.

###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로 웃음 유발

서점가에 선보인 유머로 익히는 영어책은 줄잡아 20여종. 각기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영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 영어 저류에 흐르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와 감정을 비교해 보임으로써 생활영어를 익히도록 한 책으로는 「이것이 미국영어다」(조희유 지음, 조선일보사)와 「비버대는 영어를 사랑하는 영어로」(곽효석 지음, 한국어연), 「영어는 살아있다」(신동욱 지음, 한빛) 등을 들 수 있다.

세권 모두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표현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비버대는…」의 저자 곽효석(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씨가 서문에 밝힌 것과 같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인들의 문화와 생활습관, 유머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미국인들은 야구에 관심없는 사람들조차도 야구경기에서 나온 ‘baseball」(야구용어를 활용한 결말)를 생활회화에 즐겨 사용한다. ‘Major league all this.’(줄곧 메이저리그지—출세가도 매진) ‘He’s foul-ball」(그는 파울 볼이지—맘에 안드는 녀석이지) ‘He sure threw me a curve that time.’(저녀석, 내게 커브 볼을 던졌겠다—한바탕 당했어) 등이 그렇다.

한편 수백항목의 단어를 짤막한 유머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단어를 쉽게 기억시키는 책도 있다.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정중국 지음, 박우사)와 「절로 저절로 영어」(권오숙 외 엮음, 예원) 등이 그것. ‘의지력」(Will Power)을 설명하는 유머 한토막을 보자. ‘몇달

최근 나온 영어책들은 회화·문법

단어해설에 ‘요절복통’할 유머를

섞거나 풍부한 삽화를 곁들여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어교재와는 전혀 다르다. 양질의

고급유머가 전제된다면, 이제까지의

천편일률적인 교재스타일을 벗어나

영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영어공부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안 술을 끊었던 남자가 어느날 저녁 바에 나타나서 큰소리로 말했다. ‘I’ve finally conquered my damn will power. A double Scotch, please.’(난 마침내 내 의지력을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스카치 더블로 주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한호림 지음, 디자인하우스)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삽화를 풍부하게 실어 단어 하나를 알면 또다른 단어 들까지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생각나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근육통에 붙이는 시원한 ‘네오파스」에서 ‘neo」(새로운)를 따온다. 곧이어 ‘neo」와 같이 어울려 쓸 수 있는 단어, neoclassic(신고전주의), neomycin(아주 강력한 항생제), neolith(신석기), neoimperialism(신제국주의), neologise(新語를 만듦, ~사용하다) 등 하나의 단어에서 보통 8~9개의 새로운 단어를 속속 끌어온다. 이 책은 지난해 외국어 교재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 소설처럼 ‘읽는’ 영어도 한류

짧은 유머에서 한단계 높게 소설처럼 읽는 맛을 주는 책도 있다. 「‘O」빠진 영어」(제임스 G. 터비 지음, 임현선 옮김, 한빛)가 바로 그런 경우. 낱말에 대한 각별한 관찰을 해온 저자가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스토리를 전개한 책이다. 해적 투목인 리틀 잭과 블랙이 보물 찾기를 나섰다가 우루(Ooroo)섬을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알파벳 ‘O」자를 쓰지도, 발음하지도 못하게 하는 칙령을 선포한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Piano), 오보에(Oboe) 등 ‘O」자가 들어 있는 악기의 연주도



금한다. 원주민들은 외친다. “O자를 빼고 나니, 우린 총 한 발(shot)이란 말과 총을 쏘다(shoot)라는 말을 구별할 수 없어요.”

「소설영문법해설」(김현수 지음, 누림)도 어려운 문법을 설명함에 있어 각장마다 단편 소설을 여러편 곁들여 지루함을 잊게 해주는 책이다.

만화로 구성된 영어책도 인기다. 현재 「스포츠포츠」에 ‘헝가래」를 연재중인 유정석 기자가 만화를 그린 「만화로 배우는 영어회화」(이강혁 엮음, 진명출판사)는 각 페이지마다 실용회화를 설명한 네컷의 만화를 실고 있다. 이 책은 영어 기초가 없는 초심자들이 전화사서함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회화를 배우도록 했으며 내용이 실린 테이프까지 나와 있다. ‘Let’s go by taxi」(택시로 가시죠.) ‘Who didy call?」(누구에게 전화걸었습니까?) 등 실용 회화 중심이다.

그밖에 「배꼽잡는 유머영어」(김희배 엮음, 보성출판사) 「유머 인생」(해외유머담당자 엮음, 한국경제신문사) 「웃다보면 알게 되는 영어이야기」(서울경제신문사 엮음, 성림) 등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단어와 회화를 익히게 한 책들로 서점가에 선보였다.

### ‘유머의 질이 문제’ 비판도 제기

지금까지 출간된 유머로 된 영어책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어학교재코너에서 떠날 줄 모르고 책을 보던 최봉원씨(22, 대학생)는 “영어책에서 읽는 우스개소리가 기발하고 재미있다”면서 이런 류의 책들을 반긴다. 그러나 김기태씨(34, 동양편집아카데미 학원강사)는 “영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영어교재로는 부적당하다”고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 “수룩한 영어의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빈곤한 소재로 유머를 뒤섞다보니 외설적인 유머까지 가세해 ‘더티 조크」가 남발하는 까닭이다.

어쨌든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머가 뒤섞인 영어책은 두가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우선 ‘영어공포증」에서 벗어나니 좋고, 둘째는 단어·숙어·문법 해설이 책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전 찾기에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그 두가지가 양질의 고급유머 속에 스며들어 있을 때 유머로 익히는 영어책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배은희 기자